

제1강 문장이란 무엇인가

(1교시)

※ 강의 전체의 학습목표

- ① 소설쓰기의 기초, 소설쓰기의 요소에 관해 알아본다.
- ② 기본 학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문체를 형성한다.

▲ 소설쓰기의 기초

① 격(格)에 충실하면 파격(破格)이 가능.

문학은 일종의 파격이다. 파격하고 싶다면 우선 격에 충실해라.

∴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 (1986~1982)

“시의 언어는 일상 언어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다.”

② 문장은 하나의 완전한 의사를 갖는, 단어의 모임

여러 단어가 모여도 완전한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면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예> 나, 너, 사랑, 보는 순간, 빠져 →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사랑에 빠졌다.

→ 의미 없는 각 단어만을 통해서 온전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없음.

③ 설명문, 논설문과 같은 비문학적인 글에 대한 설명은 생략

문장의 이해, 문장력 강화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체의 틀을 형성하는 걸 강의 목표로 삼겠다. 궁극적인 목표는 ‘소설쓰기’를 위한 문장 학습

▲ 소설을 읽는다 = 문장을 읽는다

→ 좋은 소설의 기초적인 판단근거는 문장력 즉 문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문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① 격에 충실하라.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라. 오히려 기존 표현과 문장들의 충실한 연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② 사투리를 활용하라.

사투리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문학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요소이다.

예> 단테의 『신곡』

대부분의 귀족과 지식인 대부분이 라틴어를 사용했던 당시에 단테는 피렌체어(하나의 방언) 즉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쓰는 말로 『신곡』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다.

③ 어휘력을 키우자.

④ 말을 살리자.

말을 하듯이 글을 쓰는 것은 문장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좋은 연습이다.

⑤ 자신의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을 표현하자.

문장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적인 연습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을 고스란히 뱉는 것.

이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기교가 가능함.

▲ 문학과 문학가에 대한 고정관념

• 소설은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다?

-천재적인 능력의 작가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천재성보다는 **다작의 노력**을 통해 좋은 작품을 남긴다.

• 문학이란 고상한 것이다?

-문학이나 문학가에 대한 고상한 이미지는 **낭만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이미지.
그러나 가장 좋은 문학은 동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다.

▲ 소설쓰기를 위한 다독, 다작, 다상량의 구체적 방법

다독 - 풍부한 고전 위주로

다작 - 많은 양 보다는 소설의 형식을 만족시키는 글을 써야 한다.

다상량 -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사유

▲ 선조들의 문장론

① 「**풍이불여일자 약이불실일사(豊而不餘一字, 約而不失一辭)**」 -한유(韓愈, 768~824, 중국 당의 문학가)

→ 풍부하되 한 글자도 남아서는 안되고, 간략하되 한 글자도 빠져서는 안 된다.

② **대상의 관찰에 대한 논의** -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조선후기 실학자)

「여인의 고개 숙인 모습에서 그녀가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보고, 턱을 꺾은 모습에서 그녀가 원망하고 있음을 보고, 혼자 서 있는 모습에서 그녀가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

고, 눈썹을 찡그린 모습에서 그녀가 수심에 차 있음을 보고, 난간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파초 잎사귀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녀가 재(齋)를 올리는 중처럼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진흙 소상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지 않는다고 책망한다면 이는 양귀비에게 치통을 앓는다고 꾸짖고 전국시대의 미인 번희(樊姬)에게 쪽을 찌지 말라고 금하는 꼴이며, 미인의 맵시 있는 걸음걸이를 요망하다고 나무라고 춤추는 자세를 경망하다고 질책하는 격이다.」

→ 글을 쓰는 사람은 **대상의 본질을 묘사**해야 한다.

하나의 인물을 형상화 할 때도 그 사람의 **내면과 외모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둘 다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③ 말과 글의 차이 - 이태준(李泰俊, 1904.1.7~?, 소설가)

「말을 그대로 적은 것, 말하듯 쓴 것 그것은 언어의 녹음이다.

문장은 문장이기 때문인 것이 따로 필요한 것이다. 언어형태가 아니라 **문장 자체의 형태가 문장 자체로 필요한 것이다**. 언어미는 사람의 입에서요, **글에서는 문장미가 요구될** 것은 자연이다. 말을 뿜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장의 허무다.」

→ 말에서는 억양이 중요하다. 억양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함.

그러나 글에서는 억양이 없으므로 부호로서 표시를 한다.

즉 문장에서는 문장에 요구되는 법칙이 있다는 것

④ 알찬 문장에 대해 -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

「글을 지을 때 많은 말로 헛되이 꾸미려고 하지 말고 알찬 말을 펼쳐 엮어 처음과 끝이 일관되고 글자와 구절구절에 간절함이 배인 뒤에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오늘날 과거 시험장의 글은 얼핏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찬찬히 보면 운치가 없고, 다만 어조사로 알팍한 뜻을 꾸민 것일 뿐이다. 말이 비록 입에는 착착 붙어도 그 뜻은 마치 새벽 이슬이나 봄날 서리가 금세 스러짐과 같다.」

(2교시)

▲ 문장의 구성요소

① 주성분

- ㄱ. 주어 : 나는 소설가다 (주격 조사-은,는,이,가)
- ㄴ. 서술어: 나는 소설가다
- ㄷ. 목적어: 나는 소설을 쓴다.(목적격 조사-을,를)
- ㄹ. 보어 : 나는 소설가가 아니다(서술어가 되다/아니다 의 경우 그 앞에 위치하는 것을 보어라 한다.)

•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달라진다.

(한국어는 서술어 중심 언어)

• 우리말에는 이중 주어가 있음.

예> 광어는 몸통이 납작하다.

•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

(예) 밥 먹었니?

② 부성분

- ㄱ. 관형어: 그는 옛 스승을 만났다 ('옛'의 품사-관형사)
- ㄴ. 부사어: 그는 키가 무척 크다

• 보다 더 생동감 있고 풍부한 묘사를 위해 부사어가 필요함

•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 관형어이고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어이다.

③ 독립성분

- ㄱ. 독립어: 아, 너로구나

우리말 기본문형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④ 음소, 음절, 낱말, 어절, 문장

- ㄱ. 음소 : ㅇ + ㅏ + ㅓ
- ㄴ. 음절 : 음 + 절
- ㄷ. 낱말 : 음절
- ㄹ. 어절 : 음절은
- ㅁ. 문장 : 이것은 음절이다

⑤ 구와 절

ㄱ. 구 :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구실을 하는 것

(예) 산책하는 것은 몸에 좋다

(예)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내 누이이다

ㄴ. 절 : 주어+동사 의 형태로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예) 나는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문장의 종류

① 홑문 : 주어 + 서술어(목적어, 보어 포함)

예> 나는 소설가다.

나는 소설을 쓴다.

나는 소설가가 아니다.

② 겹문 : 안은 문장(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어진 문장(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다 함께 풀어봅시다@

1. 다음 문장에서 각 어절의 성분을 써 보자.

아(), 나는() 정말() 못된() 짓을() 했어().

2. 다음 왼쪽 문장을 오른쪽에 있는 것과 바르게 연결해 보자

ㄱ. 나는 소설가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직업임을 모르고 있었다. 1.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ㄴ. 이 소설이 우리가 읽어야 할 소설이다. 2.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ㄷ. 그는 가진 것도 없이 큰소리만 친다. 3. 인용절을 안은 문장

ㄹ. 누나는 불이 빨갳다. 4. 부사절을 안은 문장

ㅁ. 그는 내게 소설가는 되지 말라고 말했다. 5. 서술절을 안은 문장

ㅂ.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6.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ㅅ. 나는 목이 말라서 맥주를 사 마셨다. 7. 명사절을 안은 문장

<정답>

1. (독립어), 나는(주어) 정말(부사어) 못된(관형어) 짓을(목적어) 했어(서술어).

2. ㄱ-7, ㄴ-6, ㄷ-4, ㄹ-5, ㅁ-3, ㅂ-2, ㅅ-1